

孔世權*
南貞子**
林鍾權**

施設扶養老人의 家族生活週期에 관한 考察

〈目次〉

I.	緒論
II.	資料 및 方法
III.	分析結果
IV.	結論

I. 緒論

社會構造에 있어서 家族은 가장 原初的인 공동체 單位이다. 각 個個人은 家族이라는 包括的인 意味에서 分離시켜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것은 한 人間의 出生이 家族이라는 「둥지」에서 緣由하며, 家族成員의 役割이나 關係가 社會變化에 따라서 修正될지라도 그러한 둥지를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近代化는 家族內에서의 家族構成員의 役割이나 機能면에서 많은 修正을 促求하여 왔다. 즉 傳統社會는 家族成員간의 協力으로 그들의 生活이 可能하였던 반면에 近代社會는 個人의 役割이 家族이 屬한 社會로 擴大發展되고 社會活動을 基礎로 家族生活을 營위하는 形態로 나타났다. 따라서 家族成員중 經濟活動能力을 가진 사람은 獨立的인 生活이 가능하고 그러한 경우 家族의 分割은 한층 더 급속화되는 要因이 되고 있다. 또 世代間的 價置觀의 差異는 家族固有의 傳統性和 葛藤의 要因이 되며, 이러한 要因역시 核家族化에 便乘的인 作用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近代化와 核家族化는 有機的인 關係를 가지면서 展進되는 過程의 裏面에서 우리는 家族內에서 또 다른 問題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家族構造나 成員의 役割變化가 아닌 家族內에서 殘有해야 하는 老人들이라 하겠다. 家族制度의 變化는 傳統的으로 遂行하여 오던 家族機能의 일부인 老人에 대한 扶養機能에 問題點 내지는 限界性을 가져왔으며, 이들 機能을 점차 社會機關으로 移讓시키고 있는 現象을 招來하게 되었다. 다행히 우리 社會는 아직도 傳統的인 忠

*韓國人口保健研究院 首席研究員.

**韓國人口保健研究院 責任研究員.

孝思想이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어 대다수(99.7%)의 老人은 그가 屬한 家族内에서 保護되어지고 있다. 단지 극소수(0.3%)의 老人만이 家族의 保護에서 離脱되어 社會機關인 養老院에 收容되어 있는 實態이다.

여기서 本 研究의 觀點은 家族의 保護로부터 離脱된 이들 特殊 老人集團의 家族의 背景을 考察함과 동시에 이들 家族이 걸어온 過程을 좀더 動態的 立場에서 考察할 수 있는 家族生活週期 理論을 도입하여 分析함으로써 最近 惹起되고 있는 家族内에서의 老人扶養과 關聯된 問題點과 諸 原因을 간접적으로 推論해 보고자 하는데 있다.

II. 資料 및 方法

이 研究에서 利用된 資料는 우리나라 全國에 散在해 있는 55個 養老院을 대상으로 老人福祉施設과 동 施設에 收容되어 있는 老人들의 實態調査에서 蒐集된 一部 資料이다. 이 調査는 政府의 社會福祉 政策에서 기초가 되는 老人問題를 위해서 保健 社會部가 韓國人口保健研究院에 研究依頼한 研究事業의 하나로서 1983年の 施設老人 調査와 1984年の 在家老人 調査를 통하여 老人福祉問題를 綜合的으로 研究하려는 데 기초를 둔 것이다.

동 施設老人 調査에서 調査對象은 총 3,876명이었으나 실제 調査가 가능했던 老人은 2,505명이었고, 나머지는 言語障害, 患者, 出他중 등의 理由로 調査가 불가능한 對象이었다.* 또 調査된 對象중에서도 家族生活週期를 分析하는데는 家族形成을 要件으로 하기 때문에 結婚을 하지 않았던 對象은 除外될 수 밖에 없었다. 일반적으로 追跡事實에 대한 調査는 개인들의 記憶力 관계로 精確한 응답을 구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점은 특히 老人을 對象으로 한 本 調査에서도 例外가 될 수 없었다고 본다. 그러나 家族生活週期의 決定要因이 結婚, 出産, 子女의 出家, 또는 配偶者의 死亡과 같은 주요 事件들로서 記憶이 가능했고, 이러한 要因들은 時系烈的 有機的인 關係를 갖는다는데서 家族生活週期의 概括的인 分析에서는 큰 무리가 없었음을 添言한다.

동 研究에서 家族生活週期(Family Life Cycle)의 分析은 최근 WHO가 提示한 模型을 그대로 利用하였다¹⁾. 이 모형에서 家族生活週期는 다음과 같은 段階로 區分하며, 각 據點(reference points)을 平均年齡으로 算定하고 있다.

1) 동 調査概要는 本 研究의 綜合報告書에 구체적으로 言及될 것임.

Basic Model of Family Life Cycle (nuclear family)

Phase	Family Life Cycle	Beginning Points	End of Points
I	Formation	Marriage	Birth of first child
II	Extension	Birth of first child	Birth of last child
III	Completed extension	Birth of last child	First child leaves home of parents
IV	Contraction	First child leaves home of parents	Last child leaves home of parents
V	Completed contraction	Last child leaves home of parents	Spouse dies
VI	Dissolution	Spouse dies	Surviving spouse dies

Source : WHO, Health and the Family : Studies on the Demography of Family Life Cycles and Their Health Implications, Geneva, 1978. p. 20

Ⅲ. 分 析 結 果

1. 對象老人의 一般의 特性

한 人間의 生活週期에서 “언제부터를 老人으로 보느냐?” 하는 觀點은 時代的 상황에 따라서 또는 個人에 따라서 달리 한다. 그러나 一般적으로 60세를 前後해서 老人으로 보는 傾向이 많으며, 人口學에서는 65세 以上을 老人人口로 간주하고 있다. 본 調査에서 나타난 養老院 居住 老人의 年齡分布를 보면 70대가 50.3퍼센트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60대와 80대는 各各 23.9퍼센트와 21.6퍼센트로서 비슷한 分布를 보였고 50세 미만도 일부 包含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의 性別 構成을 보면 男子老人이 889명으로서 35.5퍼센트, 女子老人은 1,616명으로서 65.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0세이상 全國老人의 性比 59*에 비하면 養老院 居住 老人의 性比는 55水準으로 類似하며, 女性의 높은 比率은 女性의 平均壽命이 男子보다 긴데 緣由한다고 하겠다. 또 教育水準을 볼 때는 절반이

1) WHO, “Health and the Family” : *Studies on Demography of Family Life Cycles the and Thier Health Implications*, Geneva, 1978.

Kwong, Paul, Patterns, of Family and Household Composition, and the Family Life Cycle in East Asia, 1950~1970, A WHO Mimeo, Harvard School of Public Health, 1979.

* 1980年 「센서스」 結果에 의거한 推定值 임. 性比; 女子 100人當 男子의 比率.

문맹이며, 2/3 이상이 定規教育을 전혀 받아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老人들의 過去 成長期의 時代的 背景이나 生活過程의 단편을 說明해 준다고 하겠다. 또 對象老人의 養老院 在所期間은 1年미만인 경우가 30.9퍼센트, 1년에서 2년 사이는 29.5퍼센트, 3년에서 4년 사이가 15.5퍼센트, 5년 이상이 24 퍼센트로서 비교적 養老院生活은 길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表 1 참조).

2. 家族背景

우리나라의 家族形態는 夫婦와 그 未婚子女로 構成된 核家族에서 夫婦와 未婚子女 및 1人的 既婚男便과 그 妻子로 構成되는 直系家族으로의 週期的 變化를 겪고 있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Elderly Persons in Nursing Homes
養老院 老人의 人口學的 特性

Variables	Number	Percent	Cum. Percent
Sex			
Male	889	35.5	35.5
Female	1,616	64.5	100.0
Age(year)			
Under 59	68	2.7	2.7
60~69	597	23.9	26.6
70~79	1,261	50.3	76.9
80~89	543	21.6	98.5
90 or over	36	1.5	100.0
Education			
Illiterate	1,200	47.9	47.9
No education	638	25.5	73.4
Elementary school	446	17.8	91.2
Middle school	122	4.9	96.1
High school or over	99	3.9	100.0
Length of Residence			
1 year or less	774	30.9	30.9
1~2 years	740	29.5	60.4
3~4 years	388	15.5	75.9
5 years or over	603	24.1	100.0

다.²⁾ 다시 말하면 젊은 男女는 結婚을 계기로 家族을 形成하여 子女를 出産, 養育하게 되며 老後에는 子女들과 同居하며, 扶養을 받게되는 制度인 것이다. 이러한 普遍的인 우리나라의 家族制度를 前提로 할 때 調査對象 老人들이 現在 家族과의 斷絶 내지는 離脱을 하게 된 原因은 이들의 家族生活에서 結婚이나 出産, 扶養關係 등에서 부터 類推될 수 있다.

表 2는 調査對象者인 養老院 居住 老人과 센서스 자료로 부터 구한 全國 老人의 結婚狀態別 比率를 비교한 것이다. 同表에서 보면 結婚에서 부터 이들 老人은 一般 老人과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調査對象者의 未婚率은 3.5퍼센트로서 一般 老人의 0.1퍼센트에 比하면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離婚이나 死別로 家族이 崩壞된 경우에 있어서도 각각 8.2퍼센트, 70.3퍼센트로서 一般 老人의 0.2퍼센트, 46.6퍼센트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 出産子女 혹은 生存子女가 없는 老人의 比率에 있어서는 一般婦人의 경우엔 出産子女가 없는 老人은 불과 2.8퍼센트에 지나지 않으나 調査對象者의 경우는 全體婦人의 1/3이라는 많은 比率에서 出産子女가 없었다는 것이 매우 특징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既婚婦人에 대한 比率를 볼 때도 비슷한 水準인 것으로 나타났다(表 2, 3 참조).

Table 2. Marital Status of Elderly Persons in Nursing Homes

養老院 老人의 結婚狀態

Marital Status	Both Sexes		Male		Female	
	Census data*	Nursing home residents	Census data*	Nursing home residents	Census data*	Nursing home residents
Never Married	0.1	3.5	0.1	6.2	0.2	6.0
Currently Married	53.0	5.9	84.7	9.8	31.6	3.8
Spouse Dies	46.6	70.3	14.9	51.6	68.0	80.6
Divorced	0.2	8.2	0.2	12.1	0.2	6.0
Separated		6.2		9.1		4.6
Unknown	0.1	0.1	0	0.2	0	0.2

Note : Number of Cases

Census : 2,268,171

Nursing Home Residents : 2,505

* BOS, 1980 *Population & Housing Census Report*, Vol. 1. 1982.

2) 韓 相福, "해방 이후 家族制度의 變化와 展望," 미래를 묻는다, 제 5 집, 韓國未來學會, 1977.

Table 3. Percent Distribution of Elderly Women Who Have Never Had Children or No Living Children
 養老院 女性老人의 子女有無

	Total Women		Ever Married Women	
	Census data*	Nursing home residents (women)	Census data*	Nursing home residents (women)
Women Who Have Never Had Children	2.8	33.2	2.8	31.2
Women Who Have No Living Children	4.2	31.2	4.1	23.7

* Source : BOS, 1980 *Population & Housing Census Report*, Vol. 2, 1982.

表 4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入所前 아들이나 며느리, 配偶者와 同居한 경우는 12.0퍼센트로 나타났으며, 58.7퍼센트에 있어 入所前 扶養者가 없었음을 알수 있다. 이들중 現在 아들이 生存해 있는 老人의 경우는 단지 10퍼센트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아들이 父母의 扶養을 기피하기 때문에 養老院으로 오게된 老人의 경우는 매우 적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딸이 生存해 있는 경우가 약 30퍼센트인 것에 비해 入所前 出嫁한 딸이 扶養했던 경우도 10.9퍼센트나 된다는 것은, 出嫁外人이라는 우리나라의 傳統的 觀念에서의 딸이지만 親庭父母 扶養의 責任을 比重있게 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겠다(表 4, 5 참조).

Table 4 . Who Took Care Admission to Nursing Homes (%)
 養老院 老人의 入院前 扶養關係

Supporter	Percent
None	58.7
Spouse	4.1
Son	6.9
Daughter in Law	1.0
Married Daughter	10.9
Othter	11.9

* Number of cases : 2,505

Table 5 . Percent Distribution of Nursing Home Residents Who Have No Living Son or Daughter by Sex
 養老院 老人의 子女關係

	Male	Female
Residents		
Who Have No Living Son	82.3	90.9
Residents		
Who Have No Living Daughter	70.4	74.1
(N)	(889)	(1,616)

3. 家族生活週期

家族生活週期の 研究는 家族의 形成過程과 家族의 解體期間内에서 生活週期の 段階를 檢討하려는데 焦點을 둔다.³⁾ 여기서 家族의 形成은 일반적으로 結婚에서 시작된다고 보며, 結婚後 子女의 出産이나 養育은 家族内에서 새로운 事實로 간주된다. 또 子女들은 成長하여 언젠고 그들 자신이 獨立된 生活을 영위해야 하며, 夫婦들은 子女를 出家시킨후 그들의 壽命을 다 할 때까지 生活을 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人間의 一生은 結婚으로서 새로운 家族을 갖는다는 것이며, 그들이 形成한 家族과 더불어 生活史를 엮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事實들을 構造的으로 分析할 때 이러한 事實들이 社會나 家族制度 또는 規範的인 變化와 복합적인 關係를 갖는다는 觀點이다. 지금까지 家族生活週期에 관한 研究는 대체로 두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 하나는 家族生活週期和 직접 關係이 되는 研究로서 家族生活週期 各 단계의 定義, 時期 및 期間을 산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家族週期 그 자체를 說明變數로 취급하여 그것이 婦人의 職業參與, 親族과의 상호작용, 住宅의 必要나 소비등에 미치는 影響을 살펴보는 것이다.⁴⁾ 家族週期分析단계 또한 학자가 취하는 理論的 입장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區分되고 있다. 본 研究에서는 家族으로부터 離脫된 이들 特殊 老人集團이 걸어온 家族生活週期 各 단계의 時期 및 期間을 산출하고 또한 이들의 家族生活週期를 一般老人의 것과 비교함으로써 이들이 特殊 立場에 처하게 된 原因을 살펴 보고자 하는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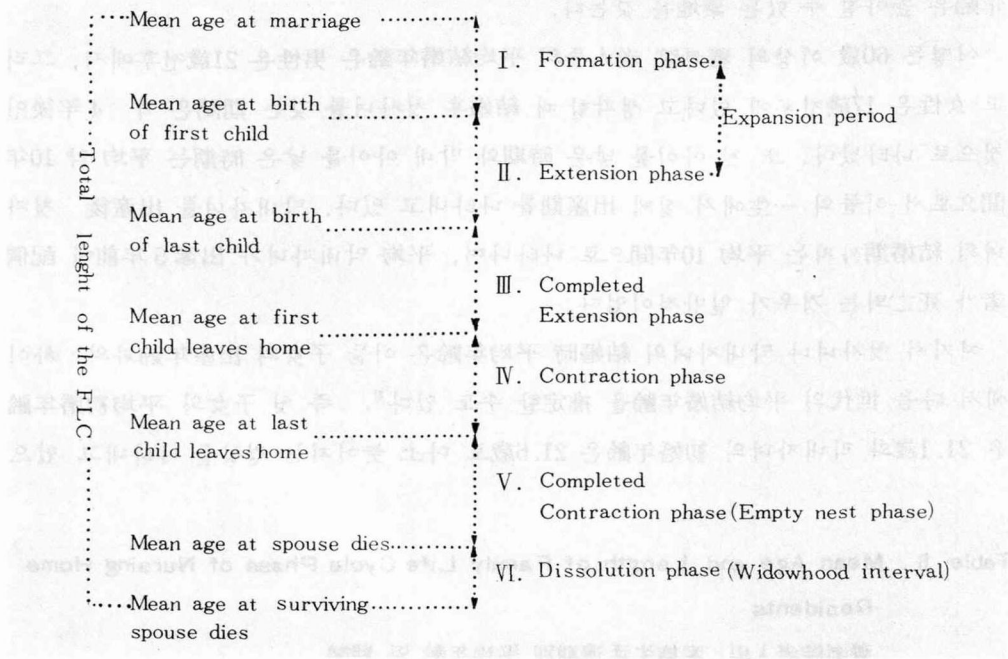
本 研究에서 家族週期の 단계적 測定은 調査된 자료를 기초로 하였으며, 生活週기가 끝나지 않은 部分에서는 推定値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家族解體期에 있는 生存者의 餘命은 一般 生命表에서 구하였다.

本 研究에서 使用한 WHO 모형은 核家族을 前提로 한 모형인바 이를 適用하게된 根據는 다음의 이유에서 이다. 즉 研究의 對象者가 直系家族 形態에서 기반된 集團이라고 假定한다면 지금의 年齡에서는 아들의 婚姻과 손자의 出生으로 家族이 계속 擴張되어 가는 단계에 있어야 하나 이들이 現在 家族의 解體를 가져온 集團이라는 事實로 미루어 直系家族보다는 核家族形態에서 由來된 集團일 것이라는 推測에서이다.

3) C. C Harris, *The Family: An Introduction*,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69. p. 151.

4) Kwong, Paul, "Patterna of Famaily and Household Composition and the Family Life Cycle in East Asia 1950~1970." A WHO Mimeo Harvard School of Public Health, 1979.

Phase of Family Life Cycle



家族生活週期 測定의 指標로는 婚姻, 初兒出産, 最終兒出産, 初兒婚姻, 最終兒婚姻 및 配偶者 死亡時의 平均年齡을 사용하였다. 分析對象으로는 60세이상 老人중 出産子女가 있는 既婚母로 했으며 따라서 女子老人의 경우는 本人에 대한 정보가 사용되었고 男子老人의 경우에는 配偶者에 관한 정보를 사용하였다. 女子老人의 경우 既婚母는 1,058명이었으며 男子의 配偶者로서 既婚母는 636명으로 分析對象은 총 1,694명이며, 이는 調査對象 老人의 67.6퍼센트에 해당된다. 또한 횡단적 分析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코호트별 分析을 동시에 시도하였다. 分析結果는 다음과 같다.

同 養老院에 收容된 老人들의 平均 初婚年齡은 男子의 경우 20.7歲이며, 女子는 17.0歲로서 약 4年差異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1935年이후 우리나라 夫婦들의 初婚時 年齡差와 크게 다를 바 없다⁵⁾

동 調査 以前의 우리나라 初婚年齡은 대개 未婚比率을 기초로 「Hajnal」⁶⁾ 方法에

5) 孔 世權 外, 韓國家族計劃事業,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1, p. 309.

6) John Hajnal, "Age at Marriage and Proportions Marrying," *Population Studies*, London, 7 (2) : 115, Nov. 1953, ESCAP, Popul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Country Monograph Series No. 2, 1975, p. 54.

의한 間接推定値이며, 이러한 경우 실제 既婚對象을 중심으로 했던 경우보다 結婚年齡은 높아질 수 있는 素地를 갖는다.

어떻든 60歲 이상의 養老院 老人들의 平均結婚年齡은 男性은 21歲전후에서, 그리고 女性은 17歲전후에 있다고 생각할 때 結婚후 첫자녀를 갖는 期間은 약 4年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첫 아이를 낳은 時期와 막내 아이를 낳은 時期는 平均 약 10年間으로서 이들의 一生에서 실제 出産期를 나타내고 있다. 막내자녀를 出産後 첫자녀의 結婚期까지는 平均 10年間으로 나타나며, 平均 막내자녀가 出家 5年前에 配偶者가 死亡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여기서 첫자녀나 막내자녀의 結婚時 平均年齡은 이들 子女의 出産年齡과의 차이에서 다음 世代의 平均結婚年齡을 推定할 수도 있다⁷⁾. 즉 첫 子女의 平均初婚年齡은 21.1歲와 막내자녀의 初婚年齡은 21.6歲로 다소 늦어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

Table 6 . Mean Age and Length of Family Life Cycle Phase of Nursing Home Residents

養老院老人의 家族生活週期別 平均年齡 및 期間

Phase	Mean Age at Each Phase (years)	The Length of Each Phase (years)
First Marriage	17.0 (20.6 for husband)	
Birth of First Child	21.4	4.4
Birth of Last Child	31.0	9.6
		} 14.0
Marriage of First Child	43.5	12.5
Marriage of Last Child	53.6	10.1
Death of Spouse	48.1	-5.5
Current Age at Remaining Spouse	74.0	(18)
	Men 72.4	(27.6)
	Women 75.0	
*Death of Remaining Spouse	Men +7.3	(25.3)
	Women +8.2	(35.8)

*The life expectancy was estimated based on the abridge life table in 1980.

7) Arthur J. Norton, "The Family Life Cycle Updated: Components and Uses", in Selected Studies in *Marriage and the Family*, ed. by Robert F. Winch and Graham B. Spanier,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1974, p. 194.

나 이는 첫자녀나 막내자녀의 性別에 따라서 달라한다고 하겠다. 즉 이들 자녀가 男子일 경우는 낮아질 수 있다.

家族生活週期에 있어 老人問題와 직접 관련이 되는 단계는 配偶者 死別後 本人 死亡까지의 解體期라고 보겠다. 이 時期야 말로 홀로 남은 老人에게는 心理的으로 많은 부담을 지니고 남은 人生을 살아가야 하는 매우 서글픈 期間이기 때문이다. 調査 對象老人의 平均 配偶者 死別時 年齡을 보면 男子의 경우는 54.4세, 女子의 경우는 47.4세로서 平均 50.5세로 나타났다. 따라서 配偶者 死別後 現在까지 지내온 期間을 산출해 보면 男子에서는 18년, 女子의 경우는 27.6년이라는 긴 세월이 된다. 거기다 이들의 平均餘命까지를 계산한다면 男子老人의 경우는 配偶者 死別이후 도합 25.3년을 홀로 살아야하며, 女子老人의 경우는 35.8년을 홀로 살아야 한다는 結論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점은 이들의 平均壽命이 一般集團보다 훨씬 높은데서 기인된 問題點이라고 보겠다(表 6 참조). 對象老人의 家族生活週期를 一般老人의 것과 비교해 보면 調査對象老人의 경우 最終兒出生時 平均年齡에서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며 그 結果 最終兒出生에서 初兒婚姻까지의 완전 확장기는 늘어난 반면 初兒結婚에서 最終兒結婚까지의 수축기는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表 7 참조).

Table 7. Mean Age and the Length of Different Phases of Family Life Cycle by Characteristics and Year of Birth
養老院 老人과 一般人的 家族生活週期の 比較

Phase	Nursing Home Residents 1893~1923		General Population*			
	Mean age	Length (year)	1925~1929		1945~1949	
			Mean age	Length (year)	Mean age	Length (year)
First Marriage	17.0		17.0		21.7	
Birth of First Child	21.4	(4.4)	20.0	(3.0)	23.9	(2.2)
Birth of Last Child	31	(9.6)	34.4	(14.4)	27.9	(4.0)
Marriage of First Child	43.5	(12.5)	44.0	(9.6)	48.6	(20.7)
Marriage of Last Child	53.6	(10.1)	59.1	(15.1)	52.6	(4.0)
Death of Spouse	48.1	(-5.5)	54.2	(-4.9)	61.3	(8.7)

*Source : H. K. Kang, *A Study on the Family Type and Family Life Cycle*,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1982, p. 78.

家族生活週期에 대한 出生 「코호트」 (birth cohort) 별 樣相을 보면 時代的인 경향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 表에서 對象老人의 年

齡이 낮을수록 平均初婚年齡은 늦어지고 있으며, 結婚後 첫 出産時까지의 期間은 다소 축소되는 樣相을 볼 수 있다. 또 첫 자녀 출산과 막내 자녀 출산기인 실제 출산기간은 1900年이전 出生者가 10.6年間인데 비해서 1910年이후 出生者는 8.8年間으로 축소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막내자녀 출산후 첫자녀 결혼시까지인 완결가족 확대기(completed extension)는 길어지고, 첫 자녀 결혼후 막내자녀 결혼시 까지인 家族縮小期는 出産期의 低下에도 불구하고 큰 變動이 없음을 계속 結婚時期의 연장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대상자가 낮은 年齡일수록 막내자녀를 出家시키

Table 8. Mean Age at Family Life Cycle Phase of Nursing Home Residents by Birth Cohort

養老院 老人의 出生時期別 家族生活週期

Phase	Year of Birth		
	1888~1900 (N=237)	1901~1910 (N=811)	1911~1923 (N=606)
First Marriage	15.9	16.8	17.6
Birth of First Child	20.9	21.5	21.7
Birth of Last Child	31.3	31.2	30.5
Marriage of First Child	41.9	43.5	44.3
Marriage of Last Child	52.2	54.0	54.0
Death of Spouse	50.8	49.8	44.8
(Current Age at Remaining Spouse)	(85.7)	(77.1)	(67.9)

Table 9. The Length of Family Life Cycle Phase of Nursing Home Residents by Birth Cohort

出生時期에 따른 家族生活週期の 段階別 期間

Phase	Year of Birth		
	1888~1900	1901~1910	1911~1923
I & II Formation & Extension	15.4	14.4	12.9
III Completed Extension	10.6	12.3	13.8
IV Contraction	10.3	10.5	9.7
V Completed Contraction	-1.4	-4.2	-9.2
VI Dissolution	-	-	-

기前 配偶者가 死亡하는 경우는 많아져서「마이너스」期間의 上昇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 時期는 대개의 경우 2次大戰終了와 6.25動亂期로 戰爭으로 인한 未亡人이 많게 되었던 점이 아닌가 본다. 따라서 戰爭으로 인한 家族의 解體가 이들 老人의 養老院生活의 주요 契機가 되었던 것처럼 보여지기도 한다. 그것은 權熙琬⁸⁾의 家族生活週期 推定에서도 1935年과 1945年은 家族生活週期的 第5段階가 -1.2年으로 提示되고 있음에서 類推된다(表 8 참조).

IV. 結 論

近代社會는 傳統社會와 비교할 때 社會構造的인 면에서나 價値觀에 있어 많은 차이를 가져오고 있다. 老後를 家族의 「동지」에서 離脱되어 養老院에서 生活하고 있는 施設扶養老人을 중심으로 이들의 家族背景 및 家族生活週期를 考察해 본 結果는 다음과 같다. 첫째, 家族背景에서 보면 이들은 未婚率이 높고 離婚率이 높을 뿐만 아니라 出產子女가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正當적인 家庭形成에 失敗率이 높았다. 둘째, 家族週期 考察에서 보면 이들은 비교적 最終兒出生時의 平均年齡이 낮아 最終兒婚姻後 夫婦만으로 生活하는 期間이 연장된 반면 비교적 오랜 수명을 누리는 관계로 配偶者 死別後 現在에 이르는 期間 즉, 홀로 외롭게 사는 期間이 매우 긴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出生 코호트별 分析에서 보면 家族生活週期는 時代的인 背景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本研究의 對象者는 비단 家族關係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社會經濟的으로 볼 때에도 매우 特殊한 계층일 것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問題는 이들 集團의 家族關係 特性이 近代化에 따른 家族關係 特性과 매우 비슷한 樣相을 띄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들 集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바 있는 높은 離婚率이나 未婚率은 近代化에 따라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며, 또한 이들의 家族週期에서 特徵的으로 나타난 바 있는 家族收縮期の 縮小 現象과 家族解體期の 擴大 現象은 近代化에 따른 少子女觀과 平均壽命의 연장으로도 인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現象이다. 또한 이들의 家族形態로서 前提할 수 있었던 核家族 形態는 近代化가 물고 온 現象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最近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近代化의 급진전은 社會保護施設을 필요로 하는 老人의 數的 증가를 필연적으로 가져올 것을 예측케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社會保護對策이 요구된다고 보겠다.

8) 權 熙琬 “최근 우리나라의 家族生活週期 變遷에 관한 考察”, 人口保健論集, 第1卷 第1號,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1. pp. 59~72

參 考 文 獻

- 姜 熙涇 外, 韓國의 家族形態와 家族週期에 관한 研究,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2.
- 孔 世權 外, 韓國家族計劃事業,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1.
- 權 熙琬, “최근 우리나라의 家族制度 變遷에 관한 考察”, 人口保健論集, 第1卷, 第1號,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1.
- 李 效再, 家族과 社會, 經文社, 1983.
- 韓 相福, “해방이후 家族制度의 變化와 展望”, 미래를 묻는다, 제 5 집, 1977.
- Hajnal, John, “Age at Marriage and Proportions of Marrying, *Population Studies* London, 7 (2) : 115 Nov. 1953
- ESCAP, Popul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Country Monograph Series No. 2, 1975.
- Harris, C. C, *The Family : An Introduction*,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69.
- Kwong, Paul, “Patterns of Family and Household Composition and the Family Life Cycle in East Asia 1950~1970”, A WHO Mimeo, Harvard School of Public Health, 1979.
- Norton, Arthur J., “The Family Life Cycle Updated : Components and Uses,” in Selected Studies in *Marriage and Family*, ed. by Robert F. Winch Graham B. Spanier,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1974.
- WHO, “Health and Family,” *Studies on Demography of Family Life Cycles the and Theles the and Their Health Implications*, Geneve, 1978.

(Abstract)

A Study on the Family Life Cycle Elderly Persons in Nursing Home

Sae Kwon Kong* • Jung Ja Nam • Jong Kwon Im****

There are many differences between primitive society and modern society in social structure and value systems. Modernization tends to decrease the relative status of the aged and to undermine their security within the social system.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find out some linkages between modernization and problem of aging population by examining problem group of elderly persons who became nursing home residents.

This paper only focussed on their family backgrounds and family life cycles.

The findings are;

1. The higher rates of divorce, the larger proportion of persons being in nevermarried, the larger proportion of persons with no ever born children were noted among nursing home residents than the same aged population in census data.
2. Due to their lower average age at the marriage of their last child and the increased longevity of themselves, the longer empty nest periods as well as the longer widowhood were noted among nursing home residents.

It can be pointed out that, all of those findings are very closely related to modernization. In fact, those are the most dramatic changes to have occurred in the family life cycle patterns in modern societies.

From those findings, the hypothesis can be withdrawn as "the more societies modernizes, the more nursing homes where the deprived elderly persons to stay for their rest of life, will be needed."

* Fellow,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 Senior Researcher,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